

4. 애굽의 구원자 요셉 (40:1-41:57)

핵심주제

- 1) 주제: 노예인 요셉이 통치자로 탈바꿈.
- 2)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의 성취/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의 상승으로 조짐을 보임-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
- 3) 요셉의 신분 변화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역전을 예고(노예에서 큰 소유를 가지고 탈출).
- 4)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과 술 맡은 관원장의 태만함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그의 성공의 징검다리.
- 5) 39장에서 보인 요셉의 선행이 요셉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음-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 자신의 악행 때문이 아닌, 그의 가족(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고난.
- 6) 39장에서와 달리 40-41장에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심-그러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심.
- 7)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인들에게 위협을 받았으나 애굽 관리와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를 받음.
- 8) 바로의 관리와 점술가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의 우월한 지식과 통찰력이 드러남.
- 모세와 다니엘의 예표, 이방 강대국의 궁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 9) 궁극적으로 외부자들은 선택된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약속의 수혜자가 됨.
- 바울은 외부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내부자가 되었음을 증언(갈 3:8-9, 엡 3:11-14).

1) 바로의 관리들의 꿈 (40:1-32)

- 1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 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 3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 4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 5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 6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 7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 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40:1-2/ '그 후에': 요셉이 간수장 보기에 유력한 지위로 오른 후: 아마도 요셉의 나이는 28세.

- 요셉은 17세에 보디발에 팔렸고, 총리가 된 것은 13년 후인 30세. 40장과 41장은 2년의 간격이 있음.

'바로가... 노하여': 격한 불쾌감. 이들이 범한 죄가 중죄였으며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가 입증될 것.

'관원장': 높은 지위. 요셉은 애굽에서 권력이 곁에서 시련을 겪음.

40:3-4a/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 '요셉이 갇힌 곳': 요셉과 관원장들이 같은 곳에 갇혔음을 강조- 하나님의 섭리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고위직을 섬기도록 신임 받는 요셉.

40:4b-6/ '여러 날이라... 두 사람이 꿈을 꾸니': 상당한 기간이 지나 각각의 해몽이 필요한 꿈을 꿈-섭리적 사건.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유능한 시중 드는 자로써 그들의 심란함을 민감하게 알아차림.

40:7-8/ '해석할 자가 없도다': 관원장들은 자신들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대한 실망을 토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짐.

'내게 이르소서':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 9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 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 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 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40:9-11/ '내 앞에 포도주가 있는데...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술 맡은 자의 직무를 묘사하는 꿈.

- '3의 이미지': 1) 세 가지 2) 짝이 나고 꽃이 피며 포도가 익었으며 3) 취하여, 짜다가, 바쳤다

40:12-13/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설명과는 별도로 바로의 생일이 임박한 것으로 추론했을 가능성.

- 일련의 '셋'이 신속하고 임박한 행동을 암시.

'당신의 머리를 들고': 호의적인 해석이지만 떡 관원장에게는 같은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관원장으로서의 복귀. 요셉의 구출을 가능하게 함.

- 요셉은 꿈의 어떤 요소를 상징적으로 취하고 어느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지 식별할 능력이 있음.

40:14-15/ '당신이 잘 되시거든': 해석에 대한 확신.

'나를 기억하소서, 내게 호의를 보이소서, 나를 거론하소서, 나를 나가게 하소서': 필사적인 탄원.

- '나를 나가게 하소서': 출애굽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 (출 6:6, 20:2) - 출애굽을 예견.

'나는... 끌려온 자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으로 술 맡은 자에게 책임을 부여.

'옥에 갇힌 일은': 구렁텅이를 '옥'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 그러나 형제/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은 없음: '나쁜 보고'에 대한 회개(?)

16 떡 굶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19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40:16-17/ '떡 굶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르되': 술 관원장의 꿈 해석에 고무되어 자기 이야기를 서두름.

'내 머리 위에': 반복되는 어구로써 꿈의 경계를 이루며 꿈의 중심 특징을 가리킴/ 바로의 심판을 암시.

'흰 떡 세 광주리': 술 관원장의 꿈과 공통점-직업과 관련, 3의 등장.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바로가 보이지 않고 떡 관원장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철저히 수동적.

- 사체를 먹는 육식 조류는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예언의 이미지.

40:18-19/ '사흘이라, 당신의 머리를 들고': 앞의 해석과 같은 어구를 사용함으로 위안을 주면서 시작.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떡 관원장의 들려진 머리는 관직의 회복이 아닌 처형을 의미.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바로가 떡 관원장의 음식을 먹지 않았기에 새들이 그의 시체를 먹음.

20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굶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 떡 굶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20-23/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생일에는 잔치가 동반되고 술과 음식이 따름.

- 바로의 생일이 바로가 '레'의 신적인 아들로 즉위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주장-최수의 사면이 시행됨.

'머리를 들게 하니라': 요셉의 예고가 진실인지 드러나는 순간을 알리는 것.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떡 굶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의 예고의 성취.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음(미드라쉬).

2) 바로의 꿈 (41:1-57)

1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2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 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3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 가에 서 있더니

4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6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7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께죽 꿈이라

41:1/ '만 이년 후에': 2년은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두고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

'바로가 꿈을 꾀측': 성경은 바로의 꿈을 자세히 묘사.

'나일 강': 애굽 생활의 중심. 범람기의 나일 강은 애굽 종교에서 신성시.

- 바로의 임무는 강을 관리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식량을 저장하는 것.

41:2-4/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서 올라와...': 바로의 첫 번째 꿈.

- 살진 일곱 암소가 갈대를 먹는 꿈-평화와 번성의 시기를 대표.

'흥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극명한 대조와 함께 나쁜 징조를 암시. 바로가 일시적으로 깨어남.

41:5-7/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일곱 암소와 비슷.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 사막의 폭풍과 같은 동풍으로 앙상한 일곱 이삭이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킴.

8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9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굶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꾀측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 그 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41:8/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느부갓네살의 번민(파안)과 같은 것.

'점술가': '주임 강연 사제'-전문적으로 해몽하고 점을 치는 훈련을 받음.

'현인': 학식이 있는 뛰어난 고문역. 신에게 능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짐.

41:9-13/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기억하나이다': 바로의 고통을 보고 감옥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기억.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자기 꿈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 요셉의 개입과 해석의 정확함을 설명.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 외부인의 처지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것?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저항?

'그 해석한 대로 되어...': 요셉의 해석의 정확함과 자신과 떡 관원장의 엇갈린 운명을 강조.

14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7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 가에 서서

18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19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20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21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22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23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24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41:14/ '그의 옷을 갈아 입고': 요셉의 신분의 극적인 변화. 노예의 구렁텅이에서 왕을 알현하는 곳으로 인도됨.

'수염을 깎고': 애굽의 관습상 머리털까지 밀었을 것.

41:15-16/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 요셉은 꿈과 해몽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임을 증언.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왕이 듣기에 좋은 해석이 아니라 왕의 불안을 진정시킬 정확한 해석.

41:17-24/ '심히 흉하고,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충격을 과장.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시작하면서 꺼낸 말로 마무리.